



계룡산

김 장 호 < 시인 · 동국대 명예교수 · 본회의사 >

명산을 명산이게 하는 첫째 요인은 그 놓임새에 있다. 천을 훨씬 넘어서는 고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강원도의 어느 큰 산덩어리 속에 묻혀 있으면, 드러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 널리 알려질 리도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활짝 사방이 트인 평야 한가운데 솟은 산은 실제 높이가 대단치도 않으면서 멀리 수십리 밖에서도 조석으로 우러르게 되는 것이니, 인근 동리에서 그 산그늘을 그리워하다 뿐인가, 신화가 깃들고 전설이 감싸이게 되면서 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한반도의 동쪽보다는 서쪽에 유독 그런 산이 더러더러



산재하는 가운데, 계룡산(845.1m)은 특히 옛날부터 유별나게 그 이름을 떨친다. 사실, 계룡산은 천은 커녕 800m급 높이에 지나지 않으면서 호서 지방 일대 말하자면, 이 산을 동서남북으로 감싸는 대전시며 부여, 논산, 공주, 연기군에서도 한눈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 말이다. 차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내리뻗다가 산경표(山經表)에 금남정맥(錦南正脈)으로 드러나는 언저리에서, 금강의 침식으로 말미암아 지하로 숨는가 싶다가는 별안간 호서평야 한가운데 돌올하게 솟아오른 독립산이라, 신라때부터 이미 오악(五岳)중 중악(中岳)이라 이름하여 제사를 지내왔으니, 지금도 그 흔적이 이 산 남서쪽 각아지른 천황봉 절벽아래 호젓이 앉은 신원사 경내에 중악단이라는 빗돌로 남아 있다.

그런 농임새는 이 산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하고 있다. 첫째는 이 산 남쪽자락에서 백제가 신라군의 말발굽아래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일찍부터 성충(成忠)이 신라를 경계하여 탄현(炭峴·지금 식장산)과 백강(白江·지금 금강하류)을 지켜야 한다고 간(諫)한 그것이 적중하여, 결사대 5천을 거느린 계백장군이 황산벌(黃山·지금 연산)에서 대패함으로써, 의자왕 20(서기 660)년에 백제는 마침내 그 31대왕의 역년(曆年) 678년만에 나라를 잃고 만 것이다. 백제가 공주와 부여에 도움을 정한 것부터가 그렇거니와, 계룡산은 그 백제의 목덜미를 지키는 요해(要害)였던 것이다.

두번째는 고려 태조 19(936)년 일이다. 후백제의 신검(神劍), 양검(良劍), 용검(龍劍)을 쫓아 태조가 이 역시 신라군이 계백군과 대결했던 그 황산의 탄령(炭嶺·식장산)을 넘어 지금 연산 북산성에서 잔적(殘敵)을 모두 항복하게 한 것이다. 태조는 나중에 견훤(甄萱)이 거기서 병사한 황산불사(黃山佛舍)를 크게 일구어 '최후로 백제의 대적을 토핑하여 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은 부처님의 위력과 황산의 산령(山靈)에 힘입음이다'고 하여, 거기 개태사(開泰寺)를 세우고, 산명도 천호(天護)라 개칭하였으니, 그 절은 지금 연산에 태조의 초상을 모시고 있다고 동국여지승람 권 18

연산군불우조(佛宇條)가 전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 절에는 지름 3m에 둘레가 9m, 높이 1m, 그리고 두께가 6cm나 되어, 1만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철학이 전한다.

그리고 근세에 이르러서 갑오(1894)동학군이 또 보국안민(報國安民)제세창생(濟世蒼生)의 깃발을 휘두르며, 호남에서 일어 한양으로 향하던 중 황토벌을 지나 공주 우금치에서 격파당한 것이 그 셋째이니, 계룡산은 말하자면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에 걸쳐, 그 성패는 차치하고서라도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두루 화합하여 안정과 평화를 마련하려드는 그 가늌쇠구실을 해온 것이다.

뿐이 아니다. 이 산은 또 그 유다른 농임새 때문에 오랜 풍수, 도참설(圖讖說)에 연루되어 왔다. 이씨조선을 개국하면서 이성계가 먼저 여기 신도안에 주목하여 도읍을 옮기고자 한 적이 있는가 하면, 근년까지도 정감록을 믿는 신도들이 저자를 이루었다.

이 산은 그 농임새만큼 앗음새가 또 특이하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의 벃을 머리에 인 용이 굼틀대는 모습이라, 그 이름으로 불려졌으리라는 것은 쉬이 짐작이 가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그 내력을 이렇게 적고 있다. '산허리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잠연(潛淵)이라 한다. 아가리는 작고 안은 넓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사람이 나무나 돌로 메우면 이튿날 모두 밖으로 밀려난다. 땅속에 용신(龍神)이 있어 구름을 타고 드나든다 하여, 가물음을 만나 비를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다.'

품새라고 해봐야 '68년 12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총면적 61.1평방킬로미터밖에 안되는 규모이면서도, 온 산에 석영반암(石英班岩)으로 영긴 암봉들이 잇달아 솟아오른 형상을 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다 보면 줄기는 대개 X자형으로 벌려 있다. 중심축(軸)의 북면이 삼불봉(775m)이고 남쪽이 관음봉이다. 삼불봉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갈래는 수정봉(662m)을 거쳐 북쪽 구재와 서쪽 중정리쪽으로 갈라지지만, 동으로 주춤거리는 맥은 신선봉, 임금봉(553m)을 딛고 쪽 반포면 공암까지 치닫는

다. 한편 관음봉에서는 그대로 힘을 모아쥐고 남진하면서 쌀개봉(827m) 너머 이 산 주봉을 솟구치고, 그 여세를 몰아 신도안에 가서 내리꽂히지만, 그 관음봉에서 서쪽으로 문필봉(755m)을 밀어올린 맥은 다시 연천봉(738m)을 번듯하게 누인 끝에 남서쪽으로 너울거리면서 신원사를 감싸안는다.

따라서 이 산의 주맥은 삼불봉에서 관음봉을 거쳐 주봉에 이르는 척박한 칼날능선이니, 이 능선의 중심축을 자연선능, 그리고 거기서 주봉까지를 흔히 쌀개능선이라고들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 전체 바위능선길을 두루 쌀개능선이라 일렀다.

풀새가 덜한 암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산 능선상에는 뜻밖에 너그러운 풀밭이 벌어져 한결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곳이 두군데 있으니, 하나는 금잔디고개요 또 하나는 연천봉 등운암의 잔디비탈이다. 금잔디고개는 유산객이 3시간이면 넘어서는, 동학사에서 감사 사이 영마루, 오뉘탐을 지나 삼불봉의 북쪽 갈래를 넘어서면서 벌어지는 파스한 잔디밭이고, 등운암비탈의 것은 연천봉이 서편으로 파도를 밀어올리듯 넘실거리는 그 사면에 넉넉히 누운 광활한 풀밭이다. 양쪽이 다 이 산 매력을 잊지 않게 하는 쉼터로서 제격이다.

골짜기는 이 산줄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크게 양분된다. X자의 동편이 동학사골이요 서쪽이 감사골이다. 두 절이 모두 이 산이름만큼 유서깊은 절이지만, 그 중에도 감사가 나이에서 훨씬 앞선다. 감사는 ‘甲寺’이외로도 ‘岬寺’ 또는 ‘계룡甲寺’라고도 문헌에 적혀 있다. 신라 진흥왕 17(556)년에 혜명(惠明)대사가 중창한 뒤에 의상대사가 도량을 설치했다는 이 고찰(古刹)에는, 그 연조답게 문화재가 수월찮다. 철당간지주(鐵幢干支柱, 보물제 256호)와 사리부도(보물제257호)에 천근동중(銅鍾·보물제478호), 월인천강지곡 목각판(보물제582호)이 그것이다. 그 중에 철당간지주는 높이 15m, 24절(折)의 원형철통(鐵筒)으로서 청주 용두사의 것과 함께 귀중한 보물이다. 신라말 고려초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높이 2.5m

의 부도는 기단, 화사석(火舍石), 옥개(屋蓋)가 모두 8각형으로 사자, 권운(卷雲), 사천왕등의 조각이 섬세하고 우아한데다가 목조건축양식을 본 딴 옥개는 더구나 그 정교함에서 아름답기 그지없다. 구리종에 대해서는 조선조 선조 12(1584)년 조성된, 8천근무게라고 조선금석총람 하권 795페이지에 전한다.

한편 최치원이 지은 법장(法藏)화상전에 보면, 이 절이 신라때 팔공산 미리(美理)사, 지리산 화엄사, 소백산 부석사등과 함께 해동화엄대학지소(海東華嚴大學之所)의 하나로 기명되어 있고, 또 범자고(梵字攷)에는 임진왜란때 용맹을 떨친 영규(靈圭)스님이 이 절에서 승군을 일으켰다고 전한다. 동학사쪽에서 넘어가도 그렇지만, 월암리에서부터 걸어드는 길가의 아늑한 정경이며, 경내에 들어서서 이 절 대적전(大寂殿)앞을 가르는 골짜기에 앉으면, 연천봉 너머로 해가 가물가물 기우는 줄도 모른다.

동학사는 신라 성덕왕 23(724)년에 회의(懷義)화상이 창건하여 고려 태조 3(920)년에 도선국사가 태조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하나, 지금 사우(寺宇)는 거의 조선조 후기의 것으로, 3층석탑과 뜰앞에 축대만 고려때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비구니의 강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 절은, 무엇보다 유신(儒臣)들의 사당을 모시고 있는데서 특이하니, 삼은각(三隱閣)과 숙모전(肅慕殿)이 그것이다. 삼은각은 포은(圃隱) 정몽주와 야은(冶隱) 길재(吉再),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처음 태조 3(1394)년에 길재가, 나중 태조 8년에 유방택(柳芳澤)이 제사지내면서 이룩했다. 처음에는 물론 포은만의 사당이였다. 그리고 숙모전은 김시습이 처음 세조원(1456)년에 사육신을 위하여 초혼각으로 모셨다가, 단종의 어포를 가지고 와서, 그 단종과 단종비를 정전에 모신다음, 동묘에 생육신, 서묘에 사육신을 배향(配享)하여 광무 8년부터 숙모전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 그래서인지 동국여지승람 권 17에는 이 절이름을 '東學寺'라 적어놓고 있다.

동학사에서 삼불봉으로 치오른 높이에 청량사터가 있으니, 거기 쌍탑의 동쪽이 3층인데 서쪽이 6층으로, 흔히 오늬탑으로 불린다. 동학사사적기에

는 회의화상이 동학사와 함께 절을 일구어 여기서 입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쌍탑에 관하여 조선사찰전서는 전설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백제가 망하고서 그 왕족의 하나가 여기 토굴을 파서 숨어 수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밖에 소리가 나기로 나가봤더니, 큰 호랑이가 한마리 쭈그리고 앉아 괴로워하고 있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것이 있어 그런 줄로 짐작하여 끄집어내어 봤더니 사람의 뼈였다. 기뻐하는 호랑이에게 다시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지 말라 타일러 보냈더니, 이튿날 밤에 또 호랑이가 나타나 큰 멧돼지 한마리를 물고 왔다. 그것을 보고 다시 타일러 보냈더니, 며칠 후 이번에는 묘령의 여자를 하나 업고 왔다. 여자는 본디 경상도 상주 사람으로 시집간 첫날밤에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된지 모르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다. 눈이 깊은 한겨울이라 부득이 몇달을 함께 지내다가 봄이 되어 여자를 남북으로 변장시켜 친가로 데려다 주었다. 한데 그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딸을 살려낸 것은 다 하늘이 시킨 인연이니, 함께 짝을 지어 살라했다. 수도자가 몇달동안 아무 일이 없었노라 해도, 그 아버지는 믿지 않고 관청에 고소를 했으나 수도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다른 데 시집을 보냈다. 여자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수도자를 찾아가서 오누이가 되어 함께 도를 닦다가 죽어 사리를 남겼으니, 이 탑의 이름을 오누탑이라 한다.’

원경으로 보는 계룡산은 그 유서에 걸맞게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닌다. 대평리 금남포 냇가 임경업의 독락당(獨樂堂)에서는 아득히 큰 뜻을 품은 자의 꿈이 서리지만, 박가정이나 학봉리 순두부집 평상에서 쳐다보면 오히려 숙연하고, 신원사에서 바라보아 흘립한듯 준엄해보이던 것이 반포면 공암에서 돌아보면 숨은듯 그윽하다.

이 산은 물론 대전쪽에서도 환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철도건 고속도로건 경부선에서는 주능선이 잠깐 속으로 내비치다 말 뿐이다. 형편은 호남고속도로의 유성근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박가정으로 넘어서는 대덕

고개 양편으로 우산봉(574m)이며 금병산(340m), 그리고 그 남쪽으로 또 향적봉(664m), 백운봉(536m)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겹을 이룬 계룡산에는 그래서 아직도 후미진 골짜기며 등성이가 숲하다. 동쪽의 은선폭포나 서쪽의 용문폭포만이 아니다. 숲한 발길아래 짓뭇개어진 주능선보다 그 날갯죽지며, 떠나간 가쟁이 산줄기에 오히려 한갓진 등산로를 터나갈 수도 있다. 그 중에 동학사 신축공사장 뒤로 빠져 오솔길을 더터오르면 한적하기 이룰데 없는 삼불봉 비탈아래 호젓이 두어 칸 암자도 하나 앉아있다. 이름하여 심우정사(尋牛精舍)라지만, 그 판자집 같은 가건물에 비하면 그 아래 석축에 오히려 고색이 창연하다.

오랜 그 이름 탓일까, 늘상 봄비는 길을 피하여 사이사이 골짜기를 누비면 가파른 영마루 서리에서 뜻밖에 그 내력마저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움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 산 매력의 하나라 할 것이다. ≡

